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 VIP 리포트

■ 2018년 기업 경영환경 전망 및 시사점

# 목 차

---

## ■ 2018년 기업 경영환경 전망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i
1. 개 요 .....	1
2. 2018년 국내외 경제 및 기업 경영환경 전망 .....	2
3. 시사점 .....	10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백   흥   기   산업전략본부장 (02-2072-6228, hkback@hri.co.kr)

신성장연구실   : 안   중   기   연   구   위   원 (02-2072-6242, joonggiahn@hri.co.kr)

## Executive Summary

### <요 약>

#### ■ 개 요

2017년 국내 경제는 반등에 성공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하반기에 집행된 추경 예산은 경기 회복에 기여하였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경기가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고, 내수도 점차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 우리 경제는 **2018년에도 전년도에 이어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국내 가계부채 문제 등 적지 않은 불안요인들이 상존한다. 이러한 요인들이 현실화된다면 경기 회복은 제한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주요 기업이 2018년 국내외 경제 상황 및 기업 경영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 ■ 2018년 국내외 경제 및 기업 경영환경 전망

**(2018년 국내외 경제 전망)** 2018년 세계 경제는 2017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절반 이상(52.5%)의 기업들이 올해 세계 경제는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전년도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들도 39.4%에 이르렀다. 반면 2017년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은 8.1%에 불과했다. 다만 많은 기업들이 **미국발 불안요인이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46.9%) 혹은 금리 정상화(22.4%)가 세계 경제의 주요 불안요인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이 과반수를 상회했다.

국내 경제는 일시적으로 주춤하며 성장률은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회복세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38.4%)은 침체국면에 재진입할 것이라는 기업(9.1%)보다는 많았지만, 회복세가 일시적으로 주춤할 것이라는 기업(52.5%)보다는 적었다. 경제성장률도 전년도보다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작년보다 낮은 2%대 후반의 성장률을 예상하는 기업 비중이 절반을 상회하는 54.5%였다. 한편 **국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주요 불안요인으로 금리인상(28.3%), 가계부채(27.3%), 투자 위축(25.3%)이 지적**되었다. 원화 강세, 유가 상승, 고용 부진 등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 경영환경 전망)** 환율은 전년도보다 하락하고 유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기업들(46.4%)이 1,050원~1,100원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작년과 비슷한 1,100원~1,150원 사이일 것이라는 응답 비중은 32.0%였다.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 환율에 대해서는 1,050원(33.3%) 혹은 1,100원(25.9%)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현재 환율 수준은 손익분기점 환율에 근접한 상태이고, 지금보다 환율이 더 떨어지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부분의 기업들(74.0%)이 유가는 50달러~60달러에서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작년 평균보다 높은 60달러 이상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의견은 17.8%에 머물렀다.

통화정책과 관련해 대다수의 기업들은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횟수로 1~2회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2회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50%이고, 1회라는 의견은 41.8%였다. 그러나 한 번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기업보다는 노조에 친화적이냐는 질문에 대해 거의 대

부분의 기업들이 동의했다. 다소 동의한다를 선택한 기업이 73.5%이고,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16.3%였다. **친노조적인 정책은 기업 경영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저임금 상승과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소 부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64.9%, 61.9%였다. 이처럼 경제정책이 시장보다는 노조에 친화적이고 기업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도, **새 정부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았다.** B학점을 준 기업들이 62.9%로 가장 많았고, A학점을 준 기업들도 8.2%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 못지않게 기대도 존재함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다. 과반수의 기업들이 신성장동력 발굴 미흡(52.6%)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주력산업 정체(19.6%),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 미흡(11.3%)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계획) 2017년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거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았다.** 예상 성과를 상회한 기업들은 내수 호조가 실적 개선의 주요 원인이라고 응답했다. **2018년 경영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매출과 영업이익 목표가 투자와 고용 목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해 적어도 1% 이상 증가를 목표로 세운 기업이 각각 77.2%, 75.9%였다. 반면 투자와 고용은 54.7%, 49.5%에 머물렀다. 또한 비용 절감을 통한 내실경영(19.6%)에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매출 증대 및 수익성 향상(54.6%)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제품/신기술 개발(10.3%)이나 해외시장 진출 확대(15.5%)와 같은 적극적인 전략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업투자지수) 2017년 하반기 조사 당시보다 거의 모든 부문이 개선되어 투자지수는 123.6에서 135.6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다른 부문에 비해서 투자여건 개선이 미흡했다. 전년도 하반기 조사 때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다른 부문과 비교하면 저조한 편이다. 현재의 투자여건에 대해 만족하는 기업이 40.9%에 불과했으며, 향후 투자여건의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의 만족 비중보다 높은 62.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정보통신(ICT)·금융 등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최근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운송/물류·건설 등은 산업 평균을 하회했다.** 평균을 하회한 업종들은 상회한 업종들에 비해서 투자여건에 대한 평가가 특히 부진했다.

#### ■ 시사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기대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는 **시장과의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이 경영활동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심리 위축 및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투자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혁신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못지않게 혁신성장도 중요하다. 규제 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 제도를 도입 및 확대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지만 그동안 규제로 인해 사업활동이 제한됐던 분야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국내의 위협요인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비하여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환보유고 등 건전성 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가계부채와 관련해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대 등 부채상환능력 제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1. 개요

- 국내 경기는 반등에 성공했고 이러한 추세는 2018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불안요인이 회복세를 저해할 위험
  - 2017년 국내 경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수출의 견조한 회복세,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
    -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2016년말부터 이어졌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하반기에 집행된 약 11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은 경기 회복에 기여
    -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경기가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고, 내수도 점차 회복 국면에 진입
  - 2018년 우리 경제는 전년도에 이어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국내 가계부채 문제 등 대내외적으로 하방 리스크 요인들이 상존
    - 국내 경제는 수출 경기 호조세 지속, 내수 경기의 점진적 개선, 사드 문제 해소 등으로 2017년에 이어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국내 가계부채 문제, 3高(高금리, 高유가, 高원高) 등 다양한 불안요인이 국내 경기 회복을 저해할 위험
    - 현대경제연구원은 하방 리스크 등을 반영해 2018년 경제성장률을 2017년보다 소폭 낮은 2.8%로 전망
-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주요 기업이 2018년 국내외 경제 상황 및 기업 경영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

< 경제성장률 전망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은행.

< 설문조사 개요 >

	내 용
조사 기간	- 2017년 12월 15일 ~ 12월 19일
조사 대상	- 국내 주요 110개 기업
조사 내용	- 2018년 국내외 경제 전망 - 2018년 기업 경영환경 전망 - 2017년 경영실적 / 2018년 계획 - 기업투자지수 산출
응답 기업	- 100개 기업(응답률 91%)

## 2. 2018년 국내외 경제 및 기업 경영환경 전망

### 1) 2018년 국내외 경제 전망

○ (세계 경제) 기업들은 2018년 세계 경제는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며,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미국발 불안요인에 대해 가장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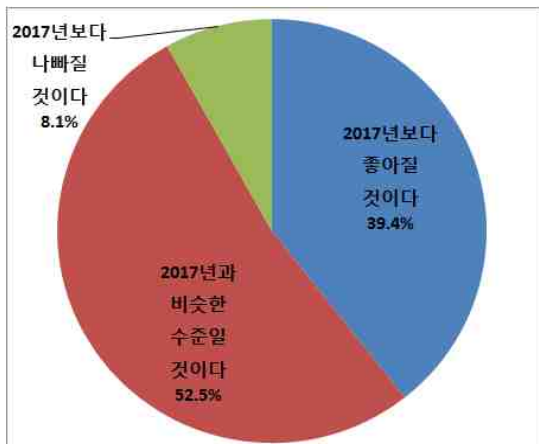
- 2018년 세계 경제 :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2018년 세계경제가 2017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

- 2018년 세계 경제는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52.5%로 가장 많음
- '2017년보다 좋아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39.4%, '2017년보다 나빠질 것이다'라는 응답 비중은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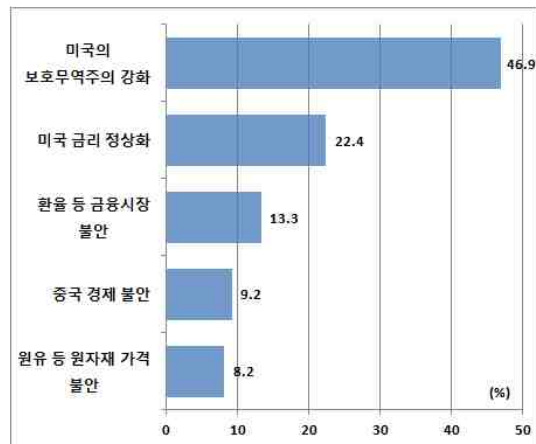
- 세계 경제 불안요인 : 많은 기업들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금리 정상화 등 미국발 불안요인이 세계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46.9%), '미국의 금리 정상화'(22.4%) 등 미국발 불안요인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기업들이 과반수를 상회
- '환율 등 금융시장 불안'(13.3%), '중국 경제 불안'(9.2%), '원유 등 원자재 가격 불안'(8.2%)이 다음 순서

< 2018년 세계 경제 전망 >



< 2018년 세계 경제 불안요인 >



○ (국내 경제) 2018년 국내 경제는 일시적으로 회복세가 주춤하여 2%대 후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고, 금리인상, 가계부채, 투자 위축이 주요 불안요인으로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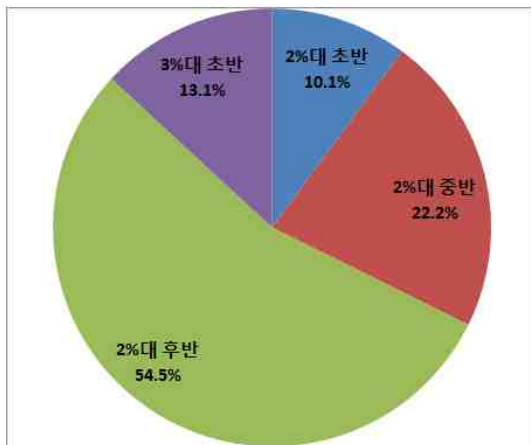
- 2018년 국내 경제 : 우리 경제는 일시적으로 주춤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제성장률은 '2%대 후반'으로 전망

- 2018년 우리 경제는 '2017년과 비슷'(57.6%)할 가능성이 높으며, '2017년보다 좋아질 것이다'라는 응답 비중은 25.3%, '2017년보다 나빠질 것이다'는 17.2%
- 2018년 국내 경제에 대해 '일시적으로 회복세 주춤'(52.5%), '회복세 점차 확대'(38.4%), '침체국면 재진입'(9.1%)이라고 응답
- 경제성장률은 '2%대 후반'이라고 전망한 기업이 54.5%이고, '2%대 중반'이 22.2%, '3%대 초반'이 13.1%, '2%대 초반'이 10.1%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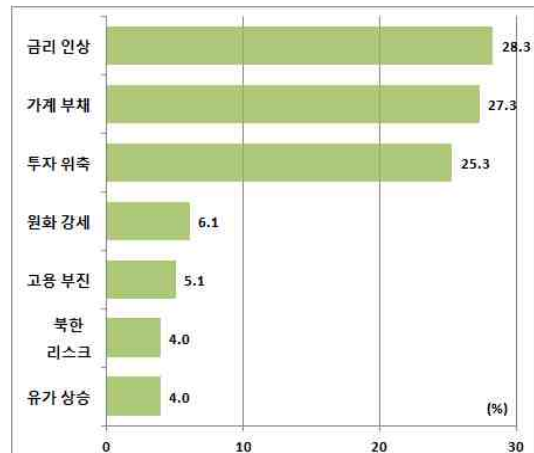
- 국내 경제 불안요인 : 2018년 국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불안요인으로 '금리인상', '가계부채', '투자 위축'이 지적

- '금리인상'(28.3%), '가계부채'(27.3%), '투자 위축'(25.3%)이 주요 불안요인으로 지적되었으며, 거의 비슷한 응답 비중을 기록
- '원화 강세'(6.1%)나 '유가 상승'(4.0%)이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 또한 '고용 부진'(5.1%)이나 '북한 리스크'(4.0%)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음

< 2018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



< 2018년 국내 경제 불안요인 >



## 2) 2018년 기업 경영환경 전망

- (대외 환경) 원/달러 환율은 전년도보다 하락하고, 유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
  - 환율 전망 : 원/달러 환율은 2017년보다 하락한 '1,050원 이상~1,100원 미만'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sup>1)</sup>
    - 2018년 평균 환율은 '1,050원 이상~1,100원 미만'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46.4%를 차지
    - '1,100원 이상~1,150원 미만' 정도가 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은 32.0%이고, '1,000원 이상~1,050원 미만'(13.4%), '1,150원 이상~1,200원 미만'(7.2%) 순서
    -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최저 손익분기점 환율에 대해 1,050원/달러(33.3%), 1,100원/달러(25.9%)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1,000원/달러(17.3%), 1,150원/달러(14.8%)임<sup>2)</sup>
  - 유가 전망 : 대부분의 기업들이 2018년 평균 유가는 전년도와 비슷한 '50달러 이상~60달러 미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sup>3)</sup>
    - 유가는 '50달러 이상~60달러 미만'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의견이 74.0%로 다수를 차지
    - '60달러 이상~70달러 미만'이라는 응답 비중이 15.6%, '40달러 이상~50달러 미만'(8.3%), '70달러 이상~80달러 미만'(2.1%)

< 2018년 원/달러 환율 전망 >



< 2018년 유가 전망 >

유가(달러/배럴)	응답 비중(%)
40이상~50미만	8.3
50이상~60미만	74.0
60이상~70미만	15.6
70이상~80미만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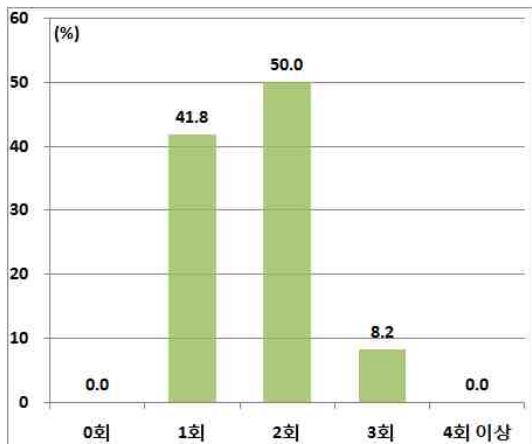
주 : 40미만이나 80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없음.

1) 2017년 평균 환율은 약 1,130원/달러임.  
 2) 기타 1,200원/달러(3.7%), 1,250원/달러(3.7%), 1,300원/달러(1.2%)임.  
 3) 2017년 WTI 기준 평균 유가는 약 51달러, 두바이유 기준으로는 약 53달러임.



- (경제정책)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횟수는 1~2회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기업보다는 노조에 친화적이라고 응답
  - 금리인상 횟수 : 대다수의 기업들은 2018년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횟수는 1~2회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
    - 2018년 금리인상 횟수에 대해 '2회'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50.0%, '1회'라는 의견을 제시한 기업은 41.8%임
    - '3회'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8.2%이고, '0회'나 '4회 이상'이라고 대답한 기업은 없음
  - 새 정부 경제정책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기업보다는 노조에 친화적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다소 동의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
    -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노조에 친화적인지에 대해서 '다소 동의한다'가 73.5%, '전적으로 동의한다'가 16.3%
    - 반면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중은 10.2%이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없음
  - 행정부/국회 정책 평가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B'학점이라는 평가가, 국회의 경제입법에 대해서는 'C'학점이라는 평가가 가장 많음
    -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B'학점(62.9%)을 준 기업이 가장 많고, 뒤이어 'C'학점(23.7%), 'A'학점(8.2%), 'D'학점(4.1%), 'F'학점(1.0%) 순서
    - 국회의 경제입법에 대해서는 'C'학점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35.1%로 가장 많고, 'B'는 27.8%, 'D'는 25.8%, 'F'는 10.3%, 'A'는 1.0%임

< 2018년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횟수 >



< 경제정책의 노조 친화성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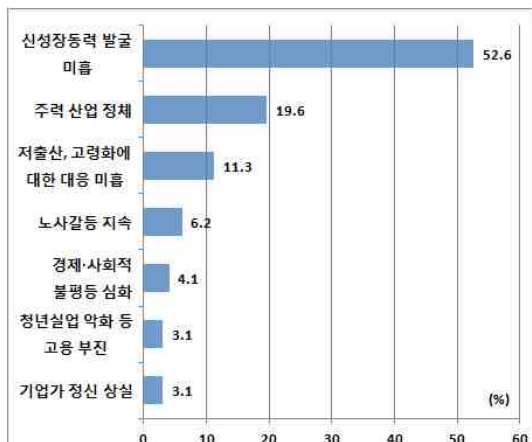
	응답 비중(%)
전적으로 동의한다	16.3
다소 동의한다	73.5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10.2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0.0

- (경제·경영 이슈) 최저임금 인상 등은 경영활동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신성장동력 발굴 미흡으로 지적
  - 최저임금 상승 등 : 최저임금 상승, 노동시간 단축 추진 등 새 정부의 정책이 경영활동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
    -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 '다소 부정적'(64.9%)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고, '별 영향 없음'(17.5%), '매우 부정적'(15.5%), '다소 긍정적'(2.1%) 순서임
    -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은 '다소 부정적'이 61.9%이고, '별 영향 없음'(24.7%), '다소 긍정적'(7.2%), '매우 부정적'(5.2%), '매우 긍정적'(1.0%)임
  - 한국경제 문제점 : 장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신성장동력 발굴 미흡'으로 지적
    -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신성장동력 발굴 미흡'(52.6%)이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이외에도 '주력산업 정체'(19.6%),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대응 미흡'(11.3%), '노사갈등 지속'(6.2%), '경제·사회적 불평등 심화'(4.1%)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
  - 4차 산업혁명 :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과 관련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그럭저럭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
    -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그럭저럭 대응하고 있다'가 54.6%, '매우 잘 대응하고 있다'가 28.9%임
    - 한편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 비중은 12.4%, '아직 실감을 못하고 있다'는 3.1%,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1.0%에 해당

< 최저임금 상승/노동시간 단축 효과 >

	(%)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매우 부정적	15.5	5.2
다소 부정적	64.9	61.9
별 영향 없음	17.5	24.7
다소 긍정적	2.1	7.2
매우 긍정적	0.0	1.0

< 한국경제의 문제점 >



### 3) 2017년 경영실적 평가와 2018년 경영계획

○ (경영실적) 2017년 경영실적이 예상보다 좋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으며, 예상 성과를 상회한 기업들은 내수 호조가 실적 개선의 주요 원인이라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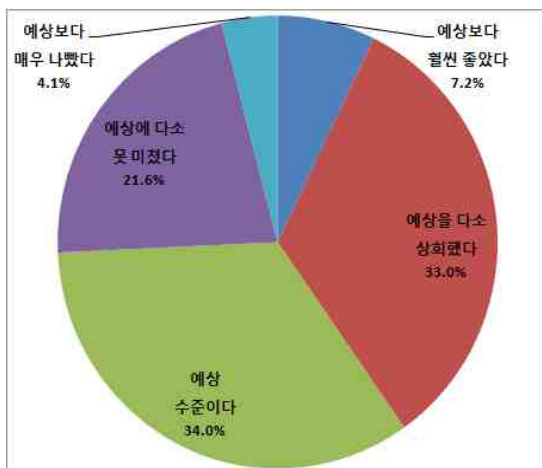
- 2017년 경영실적 : 경영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예상 못 미쳤다고 응답한 기업보다 많음

- 예상을 상회했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40.2% 수준('예상을 다소 상회했다' 33.0%,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 7.2%)
- 예상을 하회('예상에 다소 못 미쳤다' 21.6%, '예상보다 매우 나빴다' 4.1%)한 기업 비중은 25.7%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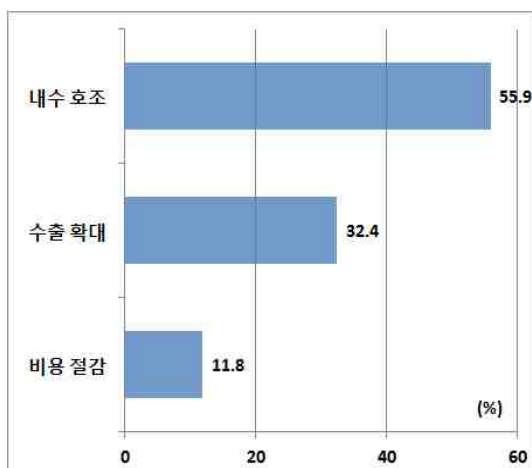
- 실적이 예상을 상회한 이유 : 경영실적이 예상을 상회한 기업들 중 절반 이상이 내수 호조가 실적 개선의 주요 원인이라고 응답

- 2017년 경영실적인 예상을 상회한 주요 이유는 '내수 호조' 55.9%, '수출 확대' 32.4%, '비용 절감' 11.8% 순서임
- 한편 실적이 예상을 하회한 이유에 대해서 기업들은 '비용 상승'(41.7%), '내수 부진'(41.7%), '수출 부진'(16.7%) 때문이라고 응답

< 2017년 경영실적 >



< 실적이 예상을 상회한 이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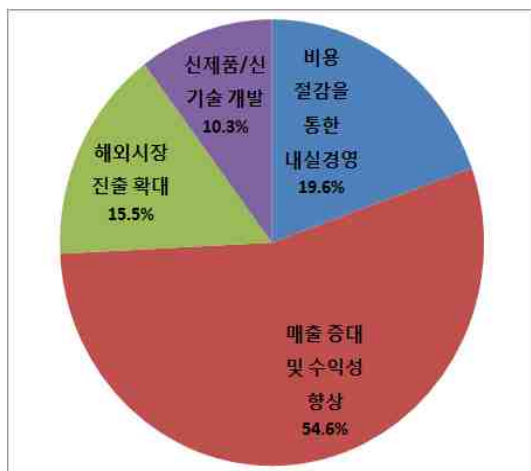


- (경영계획) 2018년 경영목표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향 조정될 전망이고, 특히 매출 증대 및 수익성 향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
- 2018년 경영목표 : 매출과 영업이익 목표가 투자와 고용 목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매출과 영업이익은 적어도 1% 이상 증가를 목표로 세운 기업이 각각 77.2%, 75.9%인 반면, 투자와 고용은 54.7%, 49.5%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매출과 영업이익은 2017년에 비해 '1~5% 증가' 목표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뒤이어 '6~10% 증가' 목표, 전년도와 동일, '11% 이상 증가' 목표 순서임
  - 2017년과 동일 수준의 투자와 고용을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각각 40.5%, 4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기업활동 우선순위 :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매출 증대 및 수익성 향상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것이라고 응답
  - 주요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통한 내실경영'(19.6%)에 우선순위를 두기 보다는 '매출 증대 및 수익성 향상'(54.6%)에 집중
  -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제품/신기술 개발'(10.3%), '해외시장 진출 확대'(15.5%)와 같은 적극적인 전략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응답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 자금 사정 : 기업들의 자금 사정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자금 사정이 '2017년과 비슷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61.5%, '다소 좋아질 것이다'는 32.3%, '다소 악화될 것이다'는 6.3%임

< 2018년 경영목표(전년대비) >

	(%)			
	매출	투자	영업이익	신규고용
11%이상 증가	12.5	7.1	14.3	2.2
6~10% 증가	26.1	19.0	25.3	11.0
1~5% 증가	38.6	28.6	36.3	36.3
0% (동일)	19.3	40.5	16.5	47.3
1~5% 감소	1.1	1.2	5.5	-
6~10% 감소	1.1	3.6	1.1	2.2
11%이상 감소	1.1	-	1.1	1.1

< 기업활동 우선순위 >



#### 4) 2018년 기업투자지수

○ (평가) 투자실적, 투자심리 등 거의 전 부문이 개선되어 투자지수는 상승했으나 투자여건 개선이 다소 미흡한 편에 속함

- **종합지수** : 2017년 하반기 조사 당시보다 거의 모든 부문이 개선되어 투자지수는 상승(123.6 → 135.6)

· 투자실적, 투자심리, 투자여건 등 투자성과를 제외한 전 부문이 2017년 하반기 조사 때보다 개선되어 종합지수는 상승

- **부문별** : 다른 부문에 비해서 투자여건 개선이 미흡한 편에 속함

· 투자심리지수, 투자성과지수, 기업가정신지수는 평균을 상회하고 투자추세지수, 투자여건지수는 평균을 하회

· 특히 투자여건지수(103.3)는 2017년 하반기 조사 때의 95.0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다른 부문과 비교하면 저조한 수치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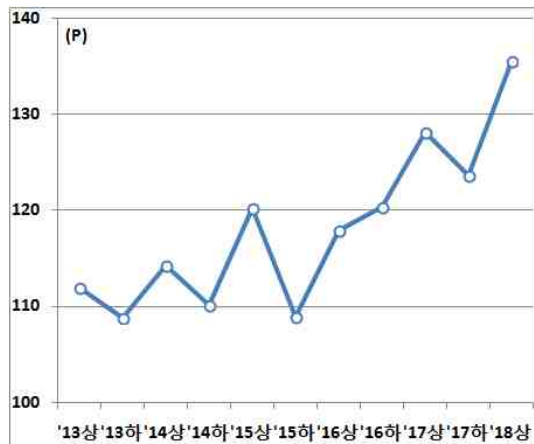
· 현재의 투자여건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40.9%에 불과함. 향후 투자여건의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의 만족 비중보다 높은 62.4%가 '그렇다'고 응답

- **산업별** : 전기전자·정보통신(ICT)·금융·정유/석유화학 등은 평균을 상회하고, 운송/물류·자동차·건설·철강 등은 산업평균을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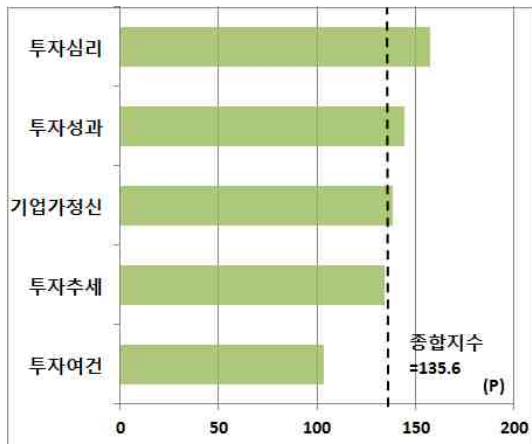
· 최근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운송/물류, 건설 등은 평균을 하회하고,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전기전자 등은 평균을 상회

· 평균을 하회한 업종들은 평균을 상회한 업종들에 비해서 투자여건에 대한 평가가 특히 저조

< 기업투자지수 추이 >



< 세부 부문별 지수 >



주 : 최소 0, 최대 200이고, 기준값은 100.

### 3. 시사점

-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투자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 경기 회복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기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과의 소통을 확대
  -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추진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영활동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심리 위축 및 부작용을 최소화
  - 또한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저항을 줄이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
- 둘째, 투자 확대 및 신규 창업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기업친화적 경제 여건을 조성
  -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규제 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 제도를 도입 및 확대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그동안 규제로 인해 사업활동이 제한됐던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도
  - 기업투자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투자 확대가 수익성 향상을 통해 고용 증대 및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
- 셋째,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계부채 문제, 3高(高금리, 高유가, 원高)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
  -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통상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통화스왑을 지속 추진하며, 외환보유고 등 건전성 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
  - 단기적으로 가계부채 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대 등을 통해 부채상환능력 제고에 집중

안중기 연구위원 (2072-6242, joonggiahn@hri.co.kr)

홍유림 연구위원 (2072-6243, ylhong@hri.co.kr)